

## 알뜰주유소, 석유시장 안정 기여



한국석유공사  
이세진 대리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변에서 '알뜰주유소'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10월 현재, 전국에는 총 1,189개의 알뜰주유소가 있어 전국 1만1,800여개 주유소 중 1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호점이 생긴지 7년만으로 일반 주유소에 비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알뜰주유소가 도입되기 전 국내 석유 시장은 특정 공급자들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주유소들은 공급 가격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알뜰주유소 사업 후 주유소 사업자들은 더 많은 선택권을 갖고 안정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알뜰주유소 사업은 국제가격 적시 반영을 통한 시장 기준 가격을 제시하면서 가격 동반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알뜰주유소 사업으로

인한 경쟁촉진으로 유통시장 구조가 개선된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다면 알뜰주유소는 다른 주유소보다 얼마나 싸진 것일까?

지난해 평균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은 정유사보다 휘발유, 경유 각각 리터당 33원 저렴했다. 운전을 하다 가장 저렴하게 기름을 넣는 방법은 '싼 주유소 찾기' 오피넷 앱에서 직접 주유소를 찾아보는 것이지만 오피넷 앱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알뜰' 간판만 보고 들어가도 그 지역 평균보다 대체로 싼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알뜰주유소 사업이 원가절감과 공급자 중간 마진 최소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공급해왔기 때문이다.

알뜰주유소는 낮은 가격 자체로서 소비자들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상표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상표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이익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4대 상표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1,495원/ℓ 이었는데 알뜰주유소의 존재로 인해 가격 인상 요인이 상당히 억제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제 소비자의 편익은 위에서 언급한 리터당 33원 보다 훨씬 크다.

알뜰주유소 사업은 불가 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 즉, 국민 경제 전체의 편익을 확대시킬 것이다.

